

삼성 협력업체들 “반덤핑 제소는 부당”

“광주 지역경제와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

정부·미 상무부·광주시에 제소 철회 요청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미국 월폴사의 반덤핑 제소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협성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한 월폴의 반덤핑 제소와 관련,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광주시, 미 상무부 등에 반덤핑 제소 철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광주는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글로벌 최대 공급

거점으로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반덤핑으로 관정되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대미수출용 냉장고·세탁기 생산은 사실상 중단돼 지역 협력업체들의 도산 등 심각한 사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삼성의 가전 생산 중단은 고용 감소와 실업으로 이어져 산업기반이 부족한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사태가 확산될 경우 반미감정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협력업체들은 “월폴이 수익성 악화를 대통령 선거에 맞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협력업체들은 “조사대상인 삼성의 냉장고와 세탁기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최고 품질의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고가 제품을 덤핑 판매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이번 제소는 시장점유율을 빼앗긴 월폴이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를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마케팅 활동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보다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이슈를 이용해 미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미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국보호주의 정책을 편다면 반미감정 등 국가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반덤핑 제소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반덤핑 제소만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율의 덤핑 과세가 확정된다면 냉장고와 세탁기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광주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경제계는 물론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경총은 이어 “양국간 고위급 회동을 통해 제소의 부당함에 대해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정부와 미 상무부 등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가 정부와 미 상무부 등에 반덤핑 제소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검 청사 앞 한우 직거래장터

우능가를 돕고, 한우산업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 축협, 광주지방 검찰청(검사장 주철현)은 19일 검찰청사 앞에서 한우고기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 이번 행사는 한우고기 소비기반을 확대해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임진년에도 사랑과 우정의 마음을 쉽게 전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희망찬 한해가 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대표이사 최금환

2012 새해에는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글로벌 테크노파크 도약의 해”

“광주테크노파크 인근에 2단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곳에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재)광주테크노파크의 유동국 원장은 지난 18일 원장실에서 “광주테크노파크는 포화상태”라며 “2단지를 개발해 친환경에너지·3D 융합 등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기본방향과 정책이 ‘지역에서 광역으로’, ‘단일에서 융합으로’, ‘성장에서 고용창출로’ 전환되고 있다”며 “광주테크노파크도 이에 맞춰 지역이라는 공간적 테두리를 넘어 광역경제권 환경에서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광산업과 자동차, 가전 등 기존 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광산업의 경우 LED·OLED를 동반한 광 융합 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생산체제 구축에 맞춰 고부가가치 부품 기업의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가전은 저가형 모델의 해외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



신 성장동력 기업 유치

지역의 새 먹거리 창출

안해 고부가가치 차세대 스마트 가전 육성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유 원장은 또 올해를 ‘글로벌 테크노파크 도약의 해’로 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전국 테크노파크 가운데 최초로 필리핀 마닐라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개설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두바이·베트남·중국 등 4개 국가에 비즈니스센터를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그는 “해외마케팅 능력이 없는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다”며 “세계 주요 도시에 비즈니스센터를 개설해 광주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통로로 삼겠다”고 말했다.

MOU(업무협약) 체결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원장은 “가치있는 기술, 가치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빨리빨리 문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단계별 철저한 점검을 하며 내실있게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MOU 체결은 타 지역과의 협상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테크노파크 입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특히 기업지원종합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해 기업의 요구를 종합관리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기업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기업지원서비스를 체계화·선진화할 계획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전국 18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사업 및 경영 평가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인센티브도 총 31억5400만 원을 받았다. 유 원장은 “지난해 지경부 평가에서 상을 싸먹었다”며 “올해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화토건 공모주 청약 ‘대박’

경쟁률 1269.57 대 1 ... 청약 증거금 1조1425억원

광주·전남 건설업체로는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남화토건이 공모주 청약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19일 남화토건(대표이사 최상준·사진)에 따르면 상장 주관사인 HMC투자증권이 지난 17~18일 이틀간 진행된 남화토건 공모주 청약에서 1269.5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1조1425억원이 몰렸다.

공모 내용은 액면가 500원에 공

모 주식수는 300만주로, 공모후 총 주식수는 1174만주가 된다. 코스닥 상장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남화토건의 이같은 청약 대박은 내실 경영에 따른 재무안정성이 높기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화토건은 부채비율이 20% 이하로 업계 평균치인 150%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다, 수익성 위주의 사업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건축 65%, 토목 31%의 비교적 균형적



인 매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전체 매출의 55%를 관급공사에서,

25%를 민간 시설공사에서 각각 얻었다. 특히 1979년 미군남수출업체로 등록한 후 2000년대 들어 매년 수주액 60억원 이상의 미군 공사를 꾸준히 맡아왔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 601억원, 영업이익 72억원, 당기순이익 59억원을 달성했다. 4분기까지 매출액 800억원, 영업이익 85억원을 낸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장 재래시장 방문

위대한 ‘말바우 시장’을 방문해 재래시장의 실정을 알아보고 지역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은행 제공)

세화아이엠씨·한국이엠에스·성장중공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광주·전남지역 3개 업체가 선정됐다.

19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업체인 (주)세화아이엠씨와 (주)한국이엠에스, 전남업체인 (주)성장중공업 등 지역 3개 기업이 중소기업부문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세화아이엠씨(대표 유희열)는 다이어 금형과 기계류 제작 업체로, 지난해 채용박람회와 대학과의 산학협력 등으로 전년보다 39명을 더 채용해 고용증가를 30.6%를 기록했다. 유 대표는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아 지역 경제계를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한국이엠에스(대표 김형국)는 세탁기·냉장고 등 부품 조립업을 경영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인력·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전년보다 38명(고용증가를 18%) 더 채용해 2년 연속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순천의 성장중공업(대표 김기영)은 강구조물 및 기계설비 공사업체로 지난해 정규직 53명, 임시·계약직 1922명, 인턴 17명 등 등 전년대비 184%인 1993명을 신규 채용했다.

호남 중소·벤처기업 투자

180억 규모 펀드 운용

호남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펀드가 운용된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180억원 규모의 ‘2011 KoFC-mvp 창투 광주·호남투자조합’이 20일 서울에서 조합원 결성 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투자조합은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해 결성한 KoFC-KVIC 일자리창출펀드 2호의 120억원을 모태로 mvp창업투자(주) 28억원, 광주테크노파크 12억원, 광주은행 10억원, (주)솔리테크 10억원이 출자됐다. 펀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운용된다.

투자조합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호남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 1914.97 (+22.58)
코스닥지수
▲ 515.70 (+2.50)
금리 (국고채 3년)
▲ 3.38% (+0.02)
원·달러 환율
▼ 1137.10원 (-4.7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